마이너스 통장이란? 마통이라고 불리는 이 대출상품의 '정식명칭은 한도대출'이라고 합니다. 대출 약정과 동시에 대출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신용대출과 달리, 대출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.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통장에 마이너스로 금액이 찍히기 때문에 '마이너스 통장' 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

마이너스 통장도 신용대출의 한 종류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.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직자는 가입하기 힘든 상품입니다.

마이너스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입출금의 편리함에 있습니다. 한도 내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,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과 다르게 인출한 금액과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됩니다.

마이너스 통장의 단점

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한도 내에 대출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. 이렇게 되면 다른 대출을 진행할 때, 마이너스통장 한도로 인해, 다른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.

• <u>내게 할당된 총 대출한도(1억</u>) - <u>마이너스 통장 한도(5천 인출X</u>) = <u>다른 대출 받을 때 남은 한도(5천 이내)</u>

또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는 복리처럼 원금에 발생한 이자가 다시 원금에 더해지며, 더해진 원금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계산되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. 이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갚아야 할 이자도 늘어난다는 이야 기입니다.

• 예시) <u>마이너스 통장 한도 1천만원에서 백만원을 인출했다면</u>, <u>-100만원의 이자가 마이너스통장에서</u> 출금됩니다. <u>이자가 만원이라면 다음달에는 -101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야하며</u>, 매월 지속적으로 원금에 이자가 추가되어 마이너스가 커집니다.

<u>마이너스 통장은 1년마다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필요합니다.</u> 만약 갱신시기에 신용점수가 낮아졌다면, 원금의 20%를 상환을 조건으로 들고 연장하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합니다. 갑작스럽게 상환해야 할 수 있으니, 사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

마이너스 통장이란?

대출은 건별대출과 한도대출로 나뉠 수 있는데, 한도대출의 한 종류가 마이너스통장이다. 입출금통장에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통장을 의미한다.

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달라

현재 잔고가 100만 원을 가정해보자.

이때 출금 가능한 한도는 당연히 100만 원이지만

이 통장에 마이너스통장 1천만 원을 실행하면 출금 가능한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1100백만 원이 된다.

이 중 200백만 원을 출금하면 통장에 표시되는 금액은 -1,000,000이다.

다시 300백만 원을 출금하면 통장에는 -4,000,000으로 표시가 된다.

이번에는 반대로 7백만 원을 입금할 경우 잔액은 3,000,000이 돌아선다.

(입 금)	(출 금)	(잔 액)
		1,000,000
	2,000,000	-1,000,000
	3,000,000	-4,000,000
7,000,000		3,000,000

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

소득증빙이 가능하거나 별도로 은행에서 정한 담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만들 수 있다.

대출이자는 나오나

당연하다. 종종 마이너스통장이라고 해서 예금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대출이다.

대출이자는 어떻게 내나

매월 첫째주 토요일 등 은행에서 정한 별도의 이자납입일이 있다.

예를 들어 5월에 -5,000,000인 상태로 10일 이었다면 5백만 원에 대한 10일 치에 대한 이자를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에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자가 빠져나간다.

<주의사항>

맛이너스통장 한도를 10백만 원이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대출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해보자.

매월 첫째 주 토요일 하루 전까지 마이너스 한도 10백만 원을 모두 사용하고 있을 경우

대출 이자로 지급될 수 있는 한도가 없다. 그러므로 이런 경우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!

연체 방지를 위해 마이너스 한도의 일부분을 남겨놓는 게 좋다.